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국제교육도시 인천

Column

국제교육도시 인천_송도글로벌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Interview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심옥령 First Program 교장



IDI 소식



제3차 서해평화정책포럼 개최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제언 활동을 위해 지난 7월 14일...

Zoom 人



수도권 교통본부 배준환 시설부장
2011년 6월부터 우리 연구원의 인천도시브랜드 센터장과 인천도시인문학센...

Zoom INcheon



경인로1. 뿔고개 넘고 도마다리 건너
경인로(京仁路)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경인로는...

도시동향



아시아 교육허브,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수준...

IDI 연구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구축 방안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2012년 9월 현재 구립 공공도서관 5개소, 사...

인천지표

구분	단위	2011년	2010년
인구	인구	2,511,000	2,490,000
면적	면적	1,063.3	1,063.3
인구밀도	인구/1km²	2,358	2,342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	0.8%	0.7%
인구증가수	인구증가수	20,000	17,000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	0.8%	0.7%
인구증가수	인구증가수	20,000	17,000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	0.8%	0.7%
인구증가수	인구증가수	20,000	17,00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인천의 교육지표로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제 도서...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송 회 연 ·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이사장

매주 수요일마다 삼성그룹계열사 사장단 40여명이 그룹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한다고 한다. 2009년 8월 26일(수)에는 삼성전자LCD사업부를 이끄는 장원기 사장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삼성LCD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삼성LCD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7조 2700억 원의 대단히 큰 이익을 냈다는 보고였다.

그러나 장원기 사장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LCD사업은 앞으로 더 이상 매출신장과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LCD사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이상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사업을 창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창출하고 육성하느냐가 우리 회사 초미(焦眉)의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이다. 따라서 최근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신성장 엔진을 찾아라', '앞으로 뭘 먹고 사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산업은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다. 문제는 '모방기술'에 의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생명력이 과연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될 것인가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랜 세월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과인도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은 가속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학술논문 정보를 수집분석 하는 과학정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가 미국에 있다. ISI에서 2007년 최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최고의 연구 인력(Highly Cited Researcher, HCR)을 1등서부터 5,000등까지 선발한 결과,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로 4,029명인 데 비해 영국이 2위로 434명, 독일, 일본이 각각 3위와 4위로 260명과 258명, 캐나다, 프랑스가 5위와 6위로 185명과 159명이었다. 강소국(強小國)으로 알려진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7위와 9위로 113명과 100명이었다. 한국의 경우, 최고의 연구인력 확보면에서 4명에 불과하여 조사 대상국 29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원천기술' 주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해 대규모 두뇌 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능력향상이 필요하다. 송도글로벌대학(SGU)은 약 10개의 세계적 유수 대학과 10여개의 비영리연구소, 30여개의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아시아의 교육 및 연구 허브로 발전함으로써 '원천기술' 주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의 필수 인프라로 성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해야 할 생명공학산업의 경우, 세계 총 연구비 약 78%가 미국에서 발생되나 한국의 생명공학 연구비는 미국의 1%미만(GDP는 미국의 7%)에 불과하다. 원천기술 개발능력이 부족한 한국이 21세기 세계경제의 화두인 생명공학산업 주도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미국 생명공학 관련 학계 및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의 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향후 약 20년 뒤 생명공학산업 세계수요의 약 60%를 인구밀도가 높은 동아시아지역이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은 영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한 동아시아지역 마케팅리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부터 국제교육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송도글로벌대학(SGU)에서는 이러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시아 학생들이 송도글로벌대학의 미국 대학 학부과정을 영어로 이수하는 동시에 중국어와 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국 학생이 송도글로벌대학을 졸업 한 후 미국의 일류 생명공학 분야 대학원에서 박사 및 박사

후 과정을 마친 다음 생명공학 관련 기업 연구소에서 일정기간의 연구 경험과 준비된 유창한 중국어, 일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지역 마케팅 리더로 진출하게 될 것이란 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회사들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모회사와 합작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생명공학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생명공학산업이 한국 스스로 원천기술 개발능력이 생길 때까지 이어주게 될 이른바 '브릿지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송도글로벌대학 (SGU) 같은 국제화교육 시스템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선행되어야 할 필수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송도글로벌대학은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할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나 문화·예술기반 창조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들 산업이 생명공학산업과 더불어 '브릿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송도글로벌대학 같은 국제화교육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도글로벌대학 같은 국제화교육 시스템은 생명공학산업뿐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한국 문화·예술기반 창조산업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인천은 송도글로벌대학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들을 계속 설립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명실상부 국제교육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원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삼성그룹계열사 사장단 40여명이 그룹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한다고 한다. 2009년 8월 26일(수)에는 삼성전자LCD사업부를 이끄는 장원기 사장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삼성LCD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삼성LCD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7조 2700억 원의 대단히 큰 이익을 냈다는 보고였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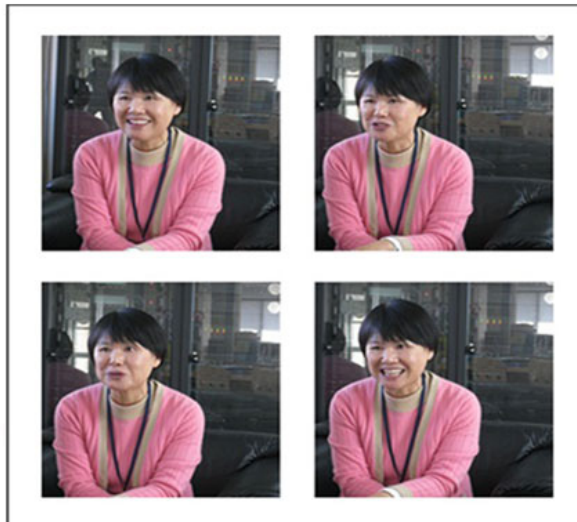
국제교육의 목적: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attitude) 갖추기

국제교육의 목적: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attitude) 갖추기



아프리에 76호에서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심옥령 First Program 교장을 만나 교육경력과 부임 계기, 달튼의 설립배경과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의 교육철학, 그리고, 특색있는 초등교육과정 및 국제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심 옥 령 First Program교장
청라달튼외국인학교

Q. 교장선생님의 교육경력과 청라달튼외국인학교에 부임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먼저, 제 전공은 국어교육인데요, 덕성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실험연구방법을 처음 도입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언어학에도 관심을 두고,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명문, 영훈초등학교 교사와 교감으로 31년간 재직했습니다. 이후에 청심국제초등학교 설립 준비에 참여했다가 봉덕학원 재단 이사장의 초빙으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학교가 있어도 반 이상의 학생이 한국학생이다. 이들에게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 학교의 기반은 정체성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조해야 한다. 외국에서 3년 이상 살아 온 한국학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60%가 외국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그 뿌리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학교의 선생님은 외국인이어야겠지만, 최고 경영자는 한국이어야 한다'는 신념과 올곧은 성격에 설득 당해서 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Q.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자율형 사립학교인 한가람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설립하였으며, 설립자는 고 이봉덕 (1921~2010) 여사입니다. 이봉덕 여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통에 아무도 교육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과 비참한 현실에서 문맹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천막을 지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미군부대를 찾아가 천막을 얻어와 교실을 짓고, 그곳에 모인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가 살 만해지면서 보다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한가람고등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한가람고등학교를 명문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니까 설립의지는 외국인 학교에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라가 국제도시가 되면서 외국인학교를 짓게 되었고, 5:1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당시 지원했던 5개 재단(3개 외국계, 국내 2개) 중에 역사적인 면이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높이 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텐데, 이사장님이 어떤 외국인학교에 기둥을 두고 학교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던 찰라에 어느날 우리나라 학생이 달튼스쿨을 나와서 엄청나게 변화된 기사를 우연찮게 읽게 되었고, 달튼 플랜이 갖고 있는 철학에 매료되어 무작정 달튼을 찾아가 삼고초려 했다고 합니다. 달튼이라는 이름을 쓰기 까지는 달튼에서 직접 사람이 나와서 봉덕학원의 학교들을 모두 검색하고, 조사하고, 낱알이 파헤친 후에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한차례 거절당했다가 이사장님의 설득과 의지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한가람고등학교에 찾아와 졸업생 선호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학교의 재정 상태까지 살펴본 연후에야 달튼의 이름을 얻게 되었고, 올 6월에는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미국 서부 교육 연합회의 약자. 미국내의 공립, 사립학교, 그리고 대학교 등의 공신력 있는 평가를 담당하는 인정 기구 중의 하나) 인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본거지 뉴욕 달튼으로의 본국 송환 비용은 없고, 교육철학과 운영방법만 따르고 있습니다.

Q.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달튼 자체에는 정해진 텍스트북이 없습니다. 달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협동과 스스로의 교육인데, 이 속에 프리덤, 즉 본인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달튼에는 하우스, 우리로 말하면 학급 담임의 개념인데, 학생의 학업이나 고민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계약과 같습니다.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을 학생들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낼 수 있도록 지도교사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학생이 되어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긍정적 에너지와 이익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 달튼의 교육철학이자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튼외국인학교에는 6가지 C로 시작하는 인재상, character, curios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ommunity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손색없이 살 수 있도록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태도(attitude)를 갖게 하는 것과 어떻게 교육적으로 포함하고 개선할 것인가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항상 정직해야 하고 남을 배려해야 하고 더불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Q.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특색있는 초등교육과정이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현재 초등학생 수는 46명인데, 중동계가 7명, 이밖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계통의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마다의 리딩 스킬과 발음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교재 없이 수업을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서로 다른 레벨의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각 교과마다 교재를 따로 선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달 복사본 1,600장 정도의 읽기자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러 리소스를 가지고, 텍스트가 있어도 부가적인 교재들을 개발하고, 고심하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릴 때 익혀야 할 중요한 공부 중 하나는 창의성의 근원이자 학문의 근원인 언어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시간표에 영어수업이 75분짜리 7회가 들어가 있고, science와 social study도 75분짜리 5회 수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초등학생은 저인(主人)으로 자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음악적인 감수성, 예술을 보는 심미안, 튼튼한 신체를 기르기 위한 art 수업도 50분용으로 3회 교육하고, PE(physical education) 3회, music 3회, 그리고, 아이들의 본국어, 대부분 중국어와 스페인어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world language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담임 미팅도 갖고, afternoon class에는 학교에 현재 네 마리 말이 있는데, 상주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승마교육도 받고, 수영장,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바이올린을 주로 연주하고, 1-2학년은 아프리카 켈레나 우드 실폰 등 타악기 종류를 익혀 리듬과 멜로디를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놓았고, 3-4학년은 모두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우쿨렐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만 숨어서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집을 아이들이 직접 우드락을 붙이고, 채색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공간은 책을 보려는 아이들로 붐빕니다.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달튼의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업과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서구의 청라지역과 연구구의 송도에 국제교육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국제교육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글로벌이라는 개념은 이제 선택할 부분이 아닌 일상이 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글로벌이라고 하면 영어권 국가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글로벌은 무엇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모두가 더불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튼외국인학교 아이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태도를 갖게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오픈 마인드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의 교육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며, 지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담 : 배 은 주(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기록·사진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아프리카에는 76호에서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심옥령 First Program 교장을 만나 교육경력과 부임 계기, 달튼의 설립배경과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의 교육철학, 그리고 특색있는 초등교육과정 및 국제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제3차 서해평화정책포럼 개최

■ 제3차 서해평화정책포럼 개최 '2013년 국내외 정치리더십 교체와 서해평화, 전망과 과제'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제언 활동을 위해 지난 7월 14일, 공식 출범한 <서해평화정책포럼(공동대표 :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이 '2013년 국내외 정치리더십 교체와 서해평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고려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2013년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정치리더십 교체가 가져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를 가능하고, 이에 따른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과제와 실천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최원식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정치리더십이 교체되는 중요한 때다. 세상의 축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때를 맞이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백학순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각각 '미·중 정치리더십 교체와 한반도 평화', '서해평화실현의 과제 -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중심으로'를 주제 발표를 했고, (사)현대중국학회 회장인 이화옥 성균관대 교수, 최종건 연세대 교수, 한국DMZ학회 회장인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혁 서울대 연구교수가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백영서(연세대), 박선원(인발연), 민귀식(한양대),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이병(한겨레평화문화재단), 이용화(현대경제연구원), 이영학(성균국대연구소), 이석우(인하대), 전인갑(인천대), 최종건(연세대), 홍연기(동북아역사재단) 등 포럼위원 및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 제2차 인천재정포럼 시 재정위기 극복 위해 국·사·비 근본적 제도 개선 논의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나서고자 제2차 인천재정포럼이 열렸다. 우리 연구원 주최로 지난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조인권 시 예산담당관의 '지방재정특위 활동사항 보고 및 인천시 대응방안'과 한양대 주만수 교수의 '지방소비세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부산대 최병호 교수의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세율 차이가 큰 국·사·비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 정책분야 토론회'

지난 11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3층 해금홀에서 우리 연구원 주최,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정책분야 토론회'가 열렸다. 신인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녹색기후TF팀장이 'GCF 사무국 유치 의의 및 향후 계획'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우리 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우리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 원장), 김호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GGGI), 민경석(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처장), 김상섭(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정남식(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기후변화대응담당), 서봉만(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조승현(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GCF 사무국 유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 고찰하고,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GCF 유치 후속 과제인 사무국 조기 정착,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서비스 산업 육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향후 2013년 상반기까지 정책, 법률, 금융, 기술, 지역경제, 거버넌스 등 주제별 GCF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도권 교통정책 연구기관, 연구협약 체결 및 공동 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11월 14일 고양시 제1킨텍스 210호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경철), 서울연구원(원장 이상현),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 등과 상호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교통정책 분야 공동연구 필요성과 연구역량의 강화 및 결집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써, 연구인력 교환과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및 연구토론회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협약식에 이어 인천발전연구원을 비롯한 4개 연구기관은 '출근자가 행복한 수도권 교통정책의 해법'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수도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별 교통서비스 평가와 개선전략'(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연구위원), '수도권 교통수요관리 방안'(서울연구원 신성일 연구위원), '수도권 대중교통의 혁신적 개선방안'(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 '수도권 교통요금정책 개선방안'(인천발전연구원



김중형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중앙대학교 이윤재 교수의 진행 아래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경기도 김상배 교통정책과장, 인천광역시 한세원 교통운영팀장, 서울대학교 이창원 교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 김무정 회장, 국토연구원 임영태 연구위원, 서울신문 류찬희 부국장, 교통문화본부 박용훈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수도권 교통의 문제점 및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 "살기 좋은 인천만들기연구 아이디어 시민공모 시상식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를 추진하고 13건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 공모는 현재 인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시민들에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인발연에서 정책연구 수행의 방향성을 재고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였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를 참여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진행한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는 총 3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농어민 전통시장 릴레이 스탬프 투어"연구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최우수상 1건(김호진)을 비롯한 우수상 2건(김병수, 송준석), 장려상(김선미, 윤규한, 김철근, 장인영, 김영운), 특별상 5건(박명현, 이회봉(2건), 김호진, 김후남) 등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8일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은 "시민들이 제안해준 좋은 아이디어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정 연구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 "글로벌시대를 향한 인천의 역할과 과제"토론회 개최

글로벌시대에 세계 대도시권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수도권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12일 인천송도마추홀타워미추홀관에서 인천발전연구원과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글로벌시대를 향한 인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우리 연구원과 지역발전위원회 연구원 및 담당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외의 공감대 속에 실효성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인천도시인문학센터 해양문화자원 연구방향 모색 세미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센터장 김창수)에서는 지난 15일, 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제2회 도시인문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서해안 해양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문화의 원형질에 해당하는 해양문화자원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국내 해양문화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해당 분야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서해안지역 해양문화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동국대 교양교육원 운영철 교수, 단국대 중앙학연구원 서종원 연구교수, 숭례대학교 이윤선 이사장 등이 각각 "인천의 해양도시(海港都市)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서해안지역 임경업 신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서해안 문화의 특징과 황해문화"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서해안 해양문화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인천시립박물관 배성수 학예연구관과 전남대 무속사업단 홍태한 공동연구원,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오창현 학예연구사가 맡게 되며, 발제자들의 서해안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서해안 해양문화 연구 현황에 대한 점검과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도시인문학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서해안지역의 해양문화 연구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용진군 군정현안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2일, 용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용진군과 군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진군 관련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를, 용진군청 공무원과 연구원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운길 용진군수 및 해당 공무원과 우리 연구원 김민배 원장을 비롯한 정책연구실장, 관련 분야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진군 관련 과제수행 현황 발표 및 연구성과 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용진군청과 연구원 간 군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연구원의 연구사업에 적극 반영기로 했다.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제언 활동을 위해 지난 7월 14일, 공식 출범한 <서해평화정책포럼(공동대표 :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이 '2013년 국내외 정치리더십 교체와 서해평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코레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수도권교통본부 배준환 시설부장

11월에 만난 idi people

“연구원 근무는 30년 공무원 생활에 있어 값진 경험, 인천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연구 많이 해주길”

수도권교통본부 배/준/환 시설부장

“아프리에 올해, Zoom인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 6월부터 우리 연구원의 인천도시브랜드센터장과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지역고유자산단장으로 일하다 지난 8월, 수도권교통본부로 자리를 옮긴 배준환 시설부장을 만났다.

배준환 시설부장은 우연한 기회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처음부터 인천시 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녹지와 공원, 건설분야, 도시계획까지 두루 몸담았다. 그러다 작년에 인발연으로 1년간 파견근무 오게 되었다. 먼저 배준환 시설부장의 3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84년, 인천시 녹지과에서 농림7급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고, '85-88년까지 인천시 최초로 가로변에 소요되는 꽃과 잔디, 나무를 연간 100만본 정도 생산·공급했다. 잘 알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곳저곳 뛰다니면서 몸소 익히고, 배워서 직접 관리인들을 지도하고 양성했다. '86아시아게임 때는 시중에 꽃이 동이나 수급이 어려워진 일도 있었는데, 구청장이 직접 찾아와 이미 각 구에 배당되어 있던 꽃을 팔라고 한 에피소드도 생각한다. '88올림픽 때는 인천시청앞 광장에 작품공모 형태로 꽃탑을 설치했는데, 야간에 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사진찍는 장소로 각광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89년에는 남동구청에 공원팀이 생기면서 구 공원행정의 기틀을 마련했고, '94-98년까지는 문학경기장 건설사업단에서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섭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98년말 인천대공원(시설과장)에서는 장수천 생태하천 1단계 사업(자연생태원과 생태하천)을 추진하여 장수천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2001년 서부공원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해군2함대사령부와 월미공원에 대한 토지협상, 연부취득과 월미공원의 개방, 월미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를 확립했다. 또, 2003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하면서 당시 바다를 매립하여 일군 땅에 과연 나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서로 회피하는 시기에 공원녹지팀장으로 임명받아, 바다를 매립한 지역에서의 나무 식재지반에 대한 조정설계를 보완하여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1000억이 넘는 송도2·4공구 공원녹지 조정공사를 발주하여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고, 녹지에 둘러싸인 쾌적한 송도국제도시 이미지 부각에 일조했다. 2005-2008년까지는 도시재생국에서 인천역·동인천역 역세권개발, 노면전차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역세권개발 사업은 지금 돌이켜보면 구도심재생이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정착 집주인이나 대상지내 주민들은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관이 나서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노면전차는 당초 시 예산사업으로 관광공사와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교통공사는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이도 자체 비용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교통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서 관광개념이 빠지고, 마인드도 신교통개념으로 변질되었고, 공사자체의 공사경험 부족이 현재의 월미은하레일 사태로 귀결되지 않았나 하는 애석한 마음도 남아있다.



2010년에 다시 서부공원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 월미공원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공원을 활성화하라는 과제를 받아 여러방면으로 고심했으나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배 시설부장은 아직도 월미도 북서측 마개설 도로의 일방통행 개설과 보행녹도개설, 아직도 철거되지 못한 군부대 담장이 제거되어야

전통정원과 전망대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한다.

배준환 시설부장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 개발이나 다른 이슈를 생각할 때, 인천시 특히 인천시민들이 행복해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줬으면 한다. 정책개발 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많겠지만, 그 정책의 주체가 행정을 위한 정책인가, 이익단체를 위한 행정인가, 진정 시민이 주체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란 것이 돈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개 원주민 국가나 네팔 등도 행복한 국가로 알려진 바와 같이 소득이 높아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웃을 수 있는 공동체의 유대감, 연대감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논리나 명분 쌓기로 인해 본질은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천발전연구원 직원 뿐 아니라 정치가나 행정가 모두가 가장 본질적으로 소프트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한편, 배준환 시설부장은 전공이 녹지쪽이다 보니 나무나 식물, 곤충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다. 나중에 등산을 하거나 나들이를 갔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나무나 식물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서 자연과 벗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또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런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도시농업에서 텃밭 등을 통해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한다. 시에서도 구도심에 옥상 녹화를 지원해 주면, 그곳에서 기른 야채를 자신도 먹지만 이웃에게 베풀기 마련이다. 그 속에서 정을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웃끼리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시설부장으로서는 서울, 경기, 인천내 BRT 간선직행버스 노선을 개발하고, 청라-화곡간 BRT 공사를 하고 있으며 1단계는 내년 6월쯤이면 끝날 예정이다.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도로 교통 분야의 일도 접하게 되었는데, 재밌는 경험이 되고 있다.



배준환 시설부장은 마지막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가족들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면서, 앞으로 인발연이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연구를 많이 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연구원에서의 1년이 공무원 생활 30년 중에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면서 앞뒤 돌아볼 겨를 없이 열심히 달리지만 했는데, 결코

웁은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바쁘더라도 나와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배준환 시설부장님이 수도권교통본부에 와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감 중 하나는 남산이 바로 뒤라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꼭 시간을 내서 직원들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사담도 나누고, 생각도 정리한다.

덕분에 인터뷰를 하면서 남산을 거닐 수 있었다. 남산으로 안내하는 배준환 시설부장님의 얼굴이 금방
상기됐다. 행복해보인다.

지금은 빨갛게 물든 단풍과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걷지만, 곧 있으면 눈썹인 남산길을 걷게 될
기대감에 설레여 할 배준환 시설부장님을 생각하니 덩달아 마음이 훈훈해진다.

■ interviewer :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글·사진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2011년 6월부터 우리 연구원의 인천도시브랜드센터장과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지역고
유자산단장으로 일하다 지난 8월, 수도권교통본부로 자리를 옮긴 배준환 시설부장을
만났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경인로1. 뽕고개 넘고 도마다리 건너



글/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식중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경인로(京仁路)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경인로는 개항 이후부터 조선의 중요한 간선 도로가 된 이래 크고 작은 노선의 변화가 있었지만, 인천시 남구 송의로터리에서 시작하여 송의3거리, 제물포역, 주안4거리, 석바위, 간석오거리, 부평역, 부천역, 오류동, 영등포역을 거쳐 여의도 입구에서 끝나는 지금의 46번 국도와 대략 일치한다. 송의아레나파크 공사가 끝난 송의로터리 일대는 아직 어수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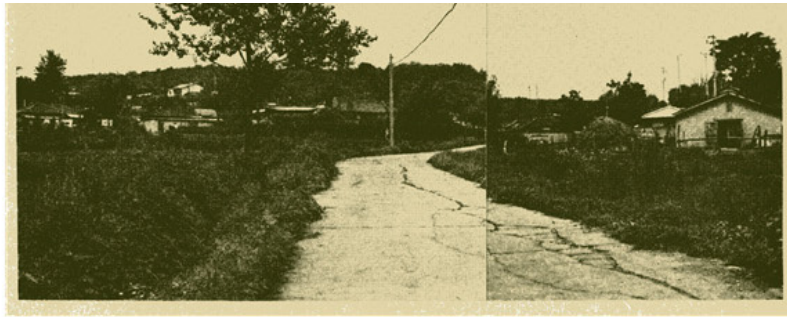
송의운동장은 1920년에 야구장으로 출발하여 1984년 종합 운동장으로 완공된 이래 장장 70여년간 인천 스포츠의 요람이었다. 지난 2008년 시설 노후로 철거한 후 오랜 공사를 거쳐 2012년 초현대식으로 환골탈태하여 그 위용을 드러낸 것이다. 송의 운동장 지붕 너머 알렌빌장이 있던 자리엔 전도관 건물이 남아 있다. 청영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함께 사라질 운명이다.

송의로터리 부근은 **이화순대나 평양옥** 같은 음식점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흥주점 거리인 **도검다리**나 집창촌 **엘로우하우스**처럼 속칭으로만 통하는 인천의 뒷골목 문화가 터잡고 있던 곳이다. 야단스러운 유흥주점들, 특히 집창촌 엘로우하우스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경영했던 유곽(遊廓) **부도정**의 잔존물로 최근엔 폐지되었다.

경인로의 주변을 훑어보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일이 있다. 길은 장소와 장소, 공간과 공간을 잇는 매개공간이지만, 대부분의 길은 시간의 켜(罫)가 겹쳐 있는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경인로와 같은 오래된 길에 겹쳐 있는 켜들은 더욱 복잡하다. 아마 경인로의 켜를 제대로 복원하면 그 자체로 고려시대 이래의 인천사가 될 것이다.

개항 이전 인천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제물원(濟物院: 중구)에서 출발하여 인천도호부의 관아가 위치했던 관교동, 경신역(지금의 남동구 수산동)을 거쳐 성현(星峴: 비루고개)→ 동소정(洞所井: 부평동)→ 역곡(驛谷)→ 오류원(梧柳院: 오류동)→ 양화도(梁花渡)에 도착하여 배로 마포나 용산으로 한양에 입성하는 경로였다. 이 길은 인천의 중림역(重林驛)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림도(重林道)의 하나였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중림역에는 6개의 역이 속해 있었는데, 인천의 경신(慶信), 시흥의 반유(盤乳), 안산의 석곡(石谷), 양천의 금륜(金輪)·남산(南山), 통진의 종생(終生) 등 6개역이다. 역로는 양천(陽川)에서 시흥(始興)을 거쳐 안산(安山)으로 가는 길, 양천에서 부평(富平: 지금의 계양구)으로 가는 길, 양천에서 통진(通津)으로 가는 길, 그리고 양천에서 시흥을 거쳐 인천으로 가는 길로 이뤄져 있었다. 양천에서 시흥을 거쳐 비루고개를 넘어 인천부로 오는 길이 갑오개혁으로 역참제도가 혁파되기 이전에 서울과 인천을 잇는 중심이었으나, 이 길과 별도로 부평의 원통이 고개를 넘어 석바위를 거쳐 제물포로 향하는 길도 있었다. 두 번째 길이 개항 이후에는 서울로 가는 주요 통로로 바뀌게 되는데, 이 길이 바로 근대적 도로인 경인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다녔으며, 관리들이나 부자들은 말이나 가마를 이용했다. 물자를 운반할 때는 인부를 사서 등짐으로 운반하거나 우마차를 이용했다. 경신역은 인천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역으로 역리(驛吏)와 말 6필, 노비 6명 이 배속되어 있어 행인들에게 역마를 태워 주었으며, 유숙소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경신역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유래된 인천의 고유한 민속놀이인 [경신역마놀이] 혹은 [경신역승놀이]가 전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신역마놀이는 남동구 민수동에 있는 경신마을에서 연희되던 마당놀이로, 역졸들이 매년 봄·가을에 말 다루는 훈련을 했는데, 이 장면을 연극적인 몸짓과 재담으로 엮은 마당놀이로 만든 것이다. 역용마(驛用馬)타기와 태마(駟馬)타기 등 말을 다루는 놀이와 역리·역졸부인·역승과의 갈등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이 놀이는 경신역이 사라지면서 멸실되고 말았다. 길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는 법이다. 경신역마놀이는 경신역이 고려시대 이래 인천의 중심역으로 오늘의 버스터미널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자연히 상인이나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형성된 민중연희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신역이 위치했던 수산동 일대(1900년대 사진)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제물포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은 조선의 여러 가로(街路)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되었다. 이 길을 통해 들어온 구미각국의 외교사절이나, 서양의 문물, 일본이나 청나라, 러시아와 같은 외국 군대들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운명이나 우리의 전통적 문화를 바꿔놓았다. 개항기에 제물포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남긴 사진이나 기행문을 통해 당시 경인로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은 가마를 타고 제물포에서 한양으로 갔다. 가마 한 대에 두명의 가마꾼과 교대를 위한 두명 등 모두 4명을 고용했다. 고개와 언덕을 오를 때마다 가마가 심하게 흔들려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의 글에는 신작로가 조성되기 이전, 구불구불하고 요철(凹凸)이 심한 경인로를 가야하는 지루함과 불편함 때문에 겪은 고통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클리포드 이후 우주가 주름져 있다는 설을 믿기는 어렵게 됐지만, 조선을 여행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다고 여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물에 푹 젖었다가 겨우 마른 몇 겹의 종이처럼 그곳의 땅 표면은 울퉁불퉁하다. 언덕길을 계속 오르노라면 그 노고를 보상이라도 하듯 반대편으로 내리막길이 잠깐 나온다. 그리고는 또 오르막이 이어진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대도 갖게 하지 못한다. 숲으로 우거진 길이라면 매우 아름답겠지만, 벌거숭이산은 삭막하며 보잘것없고, 인간에 의해 짓밟힌 흔적이 역력하다. 제물포와 서울간의 길 풍경은 조선의 다른 어느 곳에 지지 않을 만큼 황량한데, 한마디로 말해 흥미로운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조선의 도로로는 도로라는 이름에 과분할 정도로 빈약하다. 그저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에 따라 만들어진 작은 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획적으로 길을 닦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생겨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자연적으로 생긴 이래 한번도 사람의 손길이라곤 미처 본 적이 없는 듯하다. 이런 점은 보수(補修)라고는 전혀 없는 조선의 풍습과 일치하는 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프랑스 외교관 샤를 바라, 사이레 롱(Charles Varré & Chailé-Long)은 **조선기행**에서 쇄골고개를 넘는 장면과 짐꾼으로 고용한 조선인 마부들의 행동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 쇄골고개는 말을 타고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심했으며, 마부들은 주막집만 나타나면 술을 마시고 비틀대다 쓰러지곤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벨코개(Pe-ho-ka) 뽕고개를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 당도했는데, 말을 타고 가기에는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하는 수 없이 걸어서 넘었다. 그리고 계곡을 따라 계속 전진하는데, 지붕 밑 길다란 막대에 직사각형의 자그마한 버들광주리를 매단 초가집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부들이 멈춰 서는 바람에 무척이나 더디었다. 나는 마침내 혼자 앞서 나갔고, 이따금 마부들이 뒤를 따라잡는 식이 되었다. 얼마 안가 그들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보고서야 나는 왜 이처럼 자주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지를 어렵잖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등에 짚은 기다란 담뱃대가 동강날 정도로 뒤로 벌렁 나자빠졌을 땐 그 이유가 보다 분명해졌다. 샤를 바라, 성귀수 역, 『조선기행』, 눈빛, 2001, pp.54-59.

개항기에 외국인들이 가마를 타고 다녔던 길의 연도에 있었던 인천의 지명을 살펴보면 대부분 잊혀진 이름들이다. 해년일본역사지리부지도를 참고한 인천의 고유지명이다. 싸리재를 넘으면 배다리가 나온다. 배다리는 지금의 창영동 일대의 옛 지명으로 수문통이라 부르던 바다를 매립하기 전에는 이곳까지 물이 들어와 배를 탈 수 있는 잔교(棧橋)가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배다리부터는 가파른 언덕길로 접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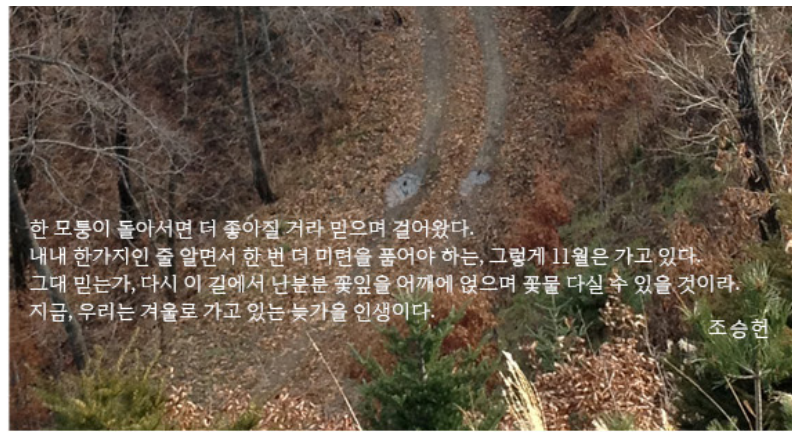
STREET IN NATIVE PORTION OF CHEMULPO.

하퍼스 위클리(Harpers Weekly)에 실린 1890년대 제물포의 도로 풍경. 정확한 촬영장소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서양인들이 자주 언급한 돌다리(지금의 우각역 일대로 추정됨)

쇠쌀고개를 넘으면 나타나는 마을이 한국(開谷)과 신기촌(新基村)이다. 지금의 송의운동장과 송의 '강시장'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다. 그다음 나타나는 마을이 석교촌(石橋村)으로, 당시에는 '돌다리'라고 불렸으며 지금의 제물포역 북광장이나 선인학원 일대의 마을이다. 돌다리를 지나면 지금의 인천교 일대인 수곡(壽谷) 마을이었다. 수봉산의 큰 골짜기는 여의실(如意室)이라 불렸다. 골이 깊어 여우가 나타나는 골짜기란 뜻에서 불인 '여우골'을 한자로 음차한 지명일게다. 여우골을 지나면 '도마다리'(鎚馬橋) 마을이다. 지금의 도화 5거리와 주안역 사이에 있었던 지명이다. 도마다리 맞은 편 마을은 '지두리'(地頭里)였는데 지금 기계공고가 있는 도화동 일대로 짐작된다. 당시의 서울길은 주안역 남광장을 지나갔는데 역 주변은 충훈부리(忠勳府里)로 불렸다. 송의동에서 주안에 이르는 길 주변의 지명, 한국과 신기촌, 돌다리와 도마다리, 대지기, 지두리와 충훈부리와 같은 지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다. '도마다리'는 신태범 선생이, '대지기'는 김윤식 시인이 각각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도마다리의 '도'지만 지금의 도화동(鎚禾洞)이란 지명의 일부로 간신히 살아남아 있을 뿐이다. 마을과 사람들이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고서야 오랫동안 불러오던 지명들이 불과 한 세기만에 까마득히, 그것도 무더기로 망각될 수 있을까? 그런데 수봉산 뒤편의 '독쟁이'나 '비랭이', 만석동의 '행이부리' 송도 쪽의 '먼우금' 따위의 지명처럼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옛 지명들은 정수(?)하고 있는 걸 보면 길이야말로 마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흉일지도 모르겠다.





한 모퉁이 돌아서면 더 좋아질 거라 믿으며 걸어왔다.
내내 한가지인 줄 알면서 한번 더 미련을 풀어야 하는, 그렇게 11월은 가고 있다.
그대 믿는가, 다시 이 길에서 난분분 꽃잎을 어깨에 얹으며 꽃물 다실 수 있을 것이라.
지금, 우리는 겨울로 가고 있는 늦가을 인생이다.

조승헌

기울에서 만난 **맛집**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50년은 되어야 '전문' 민어회와 연탄불 조개·생선구이

을 겨울, 20년만의 한파가 온다더니 11월 추위도 만만찮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된다. '마산집'은 네비게이션조차 재탐색을 거듭하며 힘들어하는, 송의동 골목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식당이다. 지난달에 소개한 강화의 '온돌집'과 막상막하의 내공을 뽐내는 당당한 포스의 식당이다.

'마산집'은 심지어 시어머니의 식당을, 며느리인 지금의 사장님이 이어받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무려 50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민어회와 제철 해산물, 생선구이가 전문이다.

매우 정직한(?) 간판의 '마산집'에 들어서면, 정겨운 난로 위에 편평하게 편 누룽지가 은근하게 익어가고, 단출한 양철 테이블 두 개, 그리고,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아우라를 풍기며 어느 식당에서도 본 적 없는, 대중탕 타일을 붙인 네모난 연탄 테이블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입구에 있는 작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45인까지 수용 가능한 큰 방도 있다.

암튼 우리 일행은 운 좋게 목욕탕 테이블(?)을 선점할 수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타일 위에 싱싱한 볼통과 맛있는 김치들, 배추김치, 파김치, 깍두기, 시원한 동치미, 새우젓호박무침, 무짜지, 청양고추 썰어 넣은 찜장 등이 올려졌다. 그리고, 발갛게 달궈진 연탄이 아궁이에 넣어졌다.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다. 또한 내공있는 식당의 특징이라면, 특별한 것 없는 김치와 밑반찬이 메인 메뉴 안 부럽게 맛있다는 점 같다. 마산집도 그렇다.



드디어 메인 메뉴들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상합, 관자, 새우 등이 있는 조개모듬구이. 싱싱하고 탱탱한 재료들을 연탄불 석쇠에 구워 함께 나오는 초장과 기름장에 찍어먹으면 쫄깃하고 구수하면서도 고유의 맛이 느껴진다. 특히 관자가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서 인기가 좋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끌릴 맛이다. 새우도 머리까지 바삭하게 구워 아낌없이 먹으면 새우깡 맛도 나고 고소하다.



그리고 고등어구이와 우럭구이. 위용이 느껴지는 냉동고에서 꺼내 올려진 생선들로 요리를 하는데, 정말 실하다. 먹기 좋게 초벌구이 해서 나온 생선은 연탄불 위에서 더 맛있게 구워진다. 고등어 살은 육즙이 살아있으면서 간간하고, 우럭은 담백하면서도 꾸덕꾸덕한 맛이 난다. 이어서 나온 갈치조림은 빈약하고 앙상한 갈치가 아닌 두툼하게 살이 오른, 그야말로 먹을 게 있는 갈치다. 조림 양념도 달큰하면서 칼칼해서 공기밥에 비벼먹기에도 좋다. 송송송 썰어 넣은 호박이랑 무며, 양파도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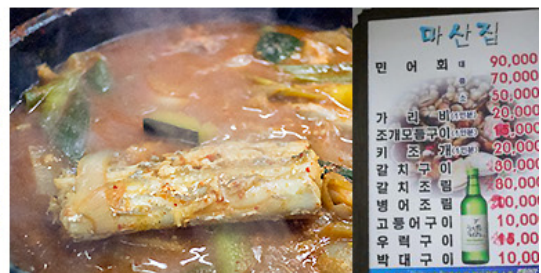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한 민어서더리지리. 사장님이 민어회가 전문이라서 그런지, 물 좋은 민어라고 지리를 권하신다. 민어 자체도 살이 많고, 담백한데다 민어 지리는 정말 끝내주는 국물맛이 무엇지를 보여주는 궁극의 맛이다. 마치 사골국처럼, 민어가 우려난 쫄면 국물이 깊고 순하면서도 풍미가 있고, 속갓, 호박 등의 조화로움이 매력적이다. 민어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생선이라 옛날에는 임금은 민어, 양반은 도미, 상놈은 개를 보양식으로 먹었다고 하니, 맛은 입증된 셈이고, 기회가 된다면 '마산집'에서 민어회를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아쉽게도 '마산집' 음식의 가격대가 그리 착한 편은 아니다(메뉴판 참조). 그러나 맛과 서비스는 별 다섯 개 감이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면, 1차로 말고 2차로 갈 것을 권하고 싶다. 배불리 먹기 보다는 가볍게 먹는다는 기분으로 가면, 사장님의 친절하고 서비스와 음식 솜씨에 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만의 단골 맛집 리스트에 등록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몸이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민어회. 그 존재를 일찍이 알아봤던 안도현의 시, **민어회**를 인용해본다.

집에서 멀리 나가 혼자 여독하게 누워
있고 심을 때가 있다.
당신은 나를 찾아 불을 켜고 밤 등대처럼
울지 모르겠으나, 나는 곧장 목포 유달산
밑으로 가서 영란회집 계신대 앞에 민어
한 마리로 누워 있겠다
벗겨 손질한 갑질 옆에다 소금 종지를
두고 내장을 냄비에 끓여 미나리도
반드시 몇가닥 얹겠다
혹여 전화하지 마라
올 테면 연분홍 살을 뜨는 칼처럼 오라
바다의 무릉도원에서 만 복사꽃을 살의
갈피마다 켜켜이 끼워둘 것이나~



*주소: 인천 남구 송의동 162-84 *전화번호: 032-883-8849

경인로(京仁路)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경인로는 개항 이후부터 조선의 중요한 간선 도로가 된 이래 크고 작은 노선의 변화가 있었지만, 인천시 남구 송의로터리에서 시작하여 송의 3거리, 제물포역, 주안4거리, 석바위, 간석오거리, 부평역, 부천역, 오류동, 영등포역을 거쳐 여의도 입구에서 끝나는 지금의 46번 국도와 대략 일치한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아시아 교육허브, 싱가포르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소현



사회서비스지원단 장 소 현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시스템이 발달되어 아시아의 교육허브로 성장하였다. 이중언어 정책을 지향하는 싱가포르의 언어교육은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되며 모국어인 중국어, 타밀어(인도)를 채택하고, 국민에게 2개의 언어를 구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종교이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글로벌 인재양성과 외국대학 유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20여 개국에서 약 8만 6,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활발한 국제대학 유치로 아시아는 물론 영미권 인재가 늘어나면서 국제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다.



Global Schoolhouse Project

싱가포르의 교육국제화 정책은 1998년 10년 내 세계 유명대학 10개를 유치하겠다는 WCUP(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에 기초를 둔다. 2002년 Global Schoolhouse 전략을 도입하여 중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교육을 제공하여 2015년까지 해외학생을 15만 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제파급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등교육(대학 및 대학원)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국내의 우수인재들이 교육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관련 부처	기능
관광청(STB)	교육 서비스 전략 관리팀으로 싱가포르 유학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경제개발청(EDB)	싱가포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기관의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주력
무역개발청(IE)	싱가포르에 설립된 우수한 학교들의 재정 지원 및 해외 캠퍼스 유치를 위해 노력
SPRING	싱가포르의 사립 교육 기관 자격 기준 관리
교육부(MOE)	싱가포르 공교육 기관 감독

세계 주요 대학의 싱가포르 진출



싱가포르에 설립된 세계 주요 대학은 1998년 미국 MIT를 시작으로 시카고대, 존스홉킨스대, 일본 와세다대 등 11개 분교가 있으며, 이 대학들은 본교 70% 수준의 교육비로 명문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INSEAD Asia Campus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3개 국립대학과 협력하여 10개의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싱가포르는 세계의 명문대학을 싱가포르 내에 유치함으로써 외국의 우수인재 또한 함께 유치하였고, 실제로 대학정원의 20%가 외국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교에서 해외인재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초·중·고교에서도 해외학생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드는 추세이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교육허브로서의 성장을 위해 국제대학 유치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풀을 구축하는 등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각종 산업과 기업으로의 연계를 통한 경제발전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제대학설립 시 국가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구체적으로 법인세 면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싱가포르는 국제대학 유치에 적극적 투자로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다국적 기업증대, 실업률 감소 등의 경제효과를 얻고 있다.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시스템이 발달되어 아시아의 교육허브로 성장하였다. 이중언어 정책을 지향하는 싱가포르의 언어교육은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되 모국어인 중국어, 타밀어(인도)를 채택하고, 국민에게 2개의 언어를 구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구축 방안

도시경영연구부 배은주 연구위원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구축 방안

배은주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2012년 9월 현재 구립 공공도서관 5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31개소, 구립 작은도서관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비교적 많은 도서관의 수에 비해 예산과 인력, 시설,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부평구는 구립 공공도서관 5개관이 모두 동쪽에 치우쳐 길게 위치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2개관이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에서 지식과 정보의 저장소, 평생학습 공간, 문화활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 공공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로서 장서수나 시설, 전문 인력 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동쪽으로 치우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공공도서관을 연이어 개관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여 운영의 노후화가 부족하고 운영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평구의 작은도서관은 구립 7개소, 사립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자치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며 전문 사서가 배치되지 않고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처지이다.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으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회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평구의 작은도서관은 운영 재정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일부 사립의 경우 임대공간의 불안정, 그리고 운영 주체에 따른 역량 격차 문제를 드러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사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사례로 부천시와 순천시, 파주시, 서울시의 강남구 사례를 살펴보면, 순천과 파주시는 공공도서관 혹은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 전담부서를 두어 공공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부천과 순천, 강남구에 비해 파주시는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지원과 협력의 대상 범위를 넓혔다는 장점이 있다. 파주시의 경우 유형과 여건에 맞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고, 부천시의 경우 민의 창의성과 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민관협력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강남구의 경우 구립의 모든 도서관과 문고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한다든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 도서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와 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도서관서비스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민관(民官)협력을 통한 윈윈(win-win) 시스템 지향, 유형과 여건에 맞는 연계·협력, 공공성과 지속성 강화를 설정하였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차적으로 구립 작은도서관의 소분관화를 전제로 구립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지역거점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주변 지역의 사립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차적으로 지역거점도서관과 공공도서관(대표도서관 제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3차적으로 대표 도서관(부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내용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비전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목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도시경영연구부 배은주 연구위원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배 은 주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인천의 교육지표로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제 도서관은 자료의 축적과 열람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향유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천에는 2012년 현재 공공도서관이 46 개관이 있고,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는 평균 61,989명이다.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연번	도서 관명	소유 관지	연면적 (㎡)	위 치	열람실 좌석수	개관 년도
1	율 목	인천시	1,464. ⁹⁸	중구 율목동 242-21	225	2011. 7. 8
2	영 중	인천시	2,150	중구 운서동 2709-1	250	2009.03.28
3	공 빛	중구청	452	중구 송학동 3가	-	2012.8.8
4	화도진	교육청	3,604	동구 화수1동 140-60	1,002	1988.10.20
5	송 립	동구청	1,930	송림동 342-1번지	-	2011.12.27
6	주 안	인천시	4,996	남구 석바위공원길 105	1,215	1990.02.06
7	수 불	인천시	2,990	남구 도화동 597-126	442	2009.08.21
8	학나래	남구청	2,486	남구 학원동 4-16	298	2007.12.27
9	독경골	남구청	374	남구 용현1동 146-442	62	2009.07.24
10	관 교	남구청	389	남구 관교동 13-1	71	2009.10.06
11	송의동	남구청	431	남구 송의1동 129-7	84	2009.10.22
12	옥 골	남구청	429	남구 도화3동 805	98	2009.10.29
13	주안1동	남구청	339	남구 주안1동 266-1	60	2010.08.20
14	정사재 (송의2동)	남구청	430	남구 송의2동 190-4	60	2011.03.12
15	연 수	인천시	5,344	연수구 연수3동 577-2	1,307	2004.03.31
16	연수 어린이	연수구	1,724	연수구 동춘동 923-1	500	2006.11.01
17	국 제 어린이	경제청	1,702. ⁶¹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500	2011. 9.30
18	청 학	연수구	2,988. ⁸²	연수구 청학동 100-15	400	2012.7.27
19	미 추 홀	인천시	13,099	남동구 구월동 610-4	1,043	대표도서관 2009.06.23
20	중 앞	교육청	5,576	남동구 구월동 1137-1	2,013	1983.09.30
21	도 립	남동구	376. ⁷⁴	남동도림동 238-18 (간석동 49-1 (3층) (간석3동 주민센터)	81	2010.02.18
22	간 석	남동구	469		40	2011.12.20
23	서 창	남동구	1,905	남동구 독곡로 10번길 15	-	2012. 5.10
24	소 래	남동구	2,092	남동구 영고개로 738 (논현동 739-4)	179	2012.3.21
25	부 평	교육청	3,299	부평구 십정동 196-454	1,116	1982.05.18
26	북 구	교육청	8,098	부평구 부평4동 880	1,832	1991.09.26
27	부 평 기적	부평구	926	부평구 부개동 499-1	-	2006.03.10
28	부개 어린이	부평구	355. ⁸⁶	부평구부개동 250-9 (舊부개1동 주민센터)	85	2011.07.14
29	갈 산	부평구	475. ²⁰	부평구갈산동 74-19 (갈산1동 주민센터)	60	2011.07.19
30	삼 산	부평구	1,592.1	부평구 삼산동 부평북로 445	-	2012. 5.7
31	부 개	부평구	1,450. ⁴⁷	부개2동 513-3 (부일로 83번길 46)	-	2012. 9.13
32	계 양	인천시	5,949	계양구 계산동 907-4	1,413	2004.03.25
33	효 성	계양구	1,414	계양구 효성동 665-11	194	2008.07.24
34	서 문	계양구	944	계양구 서문동 55-155	151	2008.05.05
35	동 양	계양구	1,650	계양구 동양동 615-2	246	2010.03.13
36	작 천	계양구	1,675	계양구 작전동 908 (까치공원)	200	2011.05.18
37	서 구	교육청	3,284	서구 가좌3동 198	856	1991.09.09
38	심 곡	서구청	1,321	서구 심곡동 252-6	45	2010.05.12
39	검 단	서구청	1,665	서구 미전동 147번지	302	2004.07.21
40	석 남	서구청	1,455	서구 석남동 471	450	2008.01.30
41	신 석	서구청	1,668. ⁷⁸	서구 석남동 169-2	85	2012. 2. 9
42	강 화	강화군	871	강화읍 관창리 301-2	192	1994.05.31
43	내 가	강화군	378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797-1번지	30	2011.03.02
44	백 립	옹진군	953	백령면 진촌리 689-4	66	2000.05.17
45	대 청	옹진군	955. ³⁸	옹진군 대청면 1134-1	109	2011.11.10
46	영 흥	옹진군	985. ⁷⁴	옹진군 영흥면 202-3	-	2012. 1. 6

■ 인천시 자치구별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명, 개관)

구분	인구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중구	97,648	3	32,549
동구	79,791	2	39,896
남구	424,815	9	47,202
연수구	291,739	4	72,935

남동구	507,705	6	84,618
부평구	569,130	7	81,304
계양구	347,429	5	69,486
서구	446,272	5	89,254
강화군	67,339	2	33,670
옹진군	19,622	3	6,541
계/평균	2,851,490	46	61,989

*출처 : 인구(인천통계, 2011년 4/4분기 기준),
공공도서관(교육청 소속 도서관 포함, 2012년 9월 기준)

인천의 교육지표로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제 도서관은 자료의 축적과 열람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향유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다. 인천에는 2012년 현재 공공도서관이 46개관이 있고,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는 평균 61,989명이다.